

중소기업 ESG경영을 위한 핵심매뉴얼



ESG & ISO인증원(주)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핵심 매뉴얼**

들어가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활동은 활발해지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삶의 질'도 제고되었다. 기업경영환경은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며 더불어 나가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강화된 ESG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정책에서 가장 먼저 엿볼 수 있다. ESG를 선도하는 유럽연합은 이미 ESG의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는 의무 공시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과 EU내 기업의 협력관계사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시행한다. ESG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정책이 법제화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의 ESG 인식과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한다.

앞으로 ESG 정보공시 보고가 의무화가 되고 ESG정보를 재무제표 기재는 필수 사항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ESG의 역할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적 규제변화의 추이에 따라 기업은 ESG 관련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기업과의 강도 높은 '협력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ESG 규제는 그룹 내 리스크 관리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전(全)사적 리스크 관리에서 범(汎)기업 협력적 리스크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ESG 경영의 진화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측정, 경영환경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적 접근, 지속가능한
공시 기준 수립, 기업들의 실천 움직임이 필요하다.

기업이 ESG 중심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영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에 있어 ESG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와 경영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은 제각각이다. 그런 연고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공
급망 내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져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ESG 경영을 위
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ESG 담당자의 입장에서 ESG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ESG 실행 매뉴얼이다. 이를 위해 국
내·외 ESG 평가항목을 최대한 분석하여 공급망 상의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최
대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ESG&ISO인증원(주) 주청돈 대표, 신운철 박사, 김철석 박사,
류철기 위원, 김원출 위원, 노강수 위원, 황신성 위원, 정무현 위원 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 제공이 있었습니다.
편집과 자료정리에 큰 도움을 준 김효진 위원께 감사하며
모쪼록 이 책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ESG&ISO인증원(주)

차 례

1장 자율이 아닌 규제로 다가온 ESG	9
1. 자발적 실행이 아닌 법과 규제의 ESG	9
2. 기업위험과 ESG	13
1) 기업위험	13
2) ESG 소송사례	14
3) 기후변화·탄소국경세와 ESG	15
4) 준법경영과 ESG	16
3. ESG 경영과 기업가치제고	18
1) ESG경영	18
2) ESG 경영 필요성 증가	19
3) ESG 경영활성화 방안	23
4. ESG 정부정책	26
2장 ESG와 주요개념	29
1. ESG의 역사 및 배경	29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30
2)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목표)	30
3)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	34
4)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보고서)	36
5)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38
2. ESG 세부항목	40
1) 환경	40
2) 사회	40
3) 지배구조	41
3. ESG와 정보공시	42
1) 정보공시	42
2) ESG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44
3) 국내외 평가기관 동향	48
4.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52
1) ESG 리스크 상위 업종	52

2) 신사업 기획의 창출	53
3) 기업과 인권	53
4) 지배구조 개선	53
3장 ESG 관련 국내외 표준분석	55
1. ESG 관련 국제표준 분석	56
1) ISO와 국제인증	56
2)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69
3)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70
4) Refinitiv	70
5)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71
6) RepRISK	72
2. ESG 관련 국내표준 분석	74
1) 한국ESG기준원의 평가지표	74
2) 서스탄베스트	77
4장 통합경영시스템 운영방안	81
1. ESG보고서 작성기준	83
1)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증보유	83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84
2. 중소기업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84
5장 중소기업을 위한 ESG 실행 매뉴얼	86
1.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86
1)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86
2) 이해관계자 찾기 및 의견수렴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87
3) 중대성평기와 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87
4) 보고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88
5) 점검 및 소통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88
2. 환경경영 실천	88
1) 환경경영 목표수립 및 계획	88
2) 분야별 목표 및 계획 수립	89

3. 친환경경영 실천	91
4. 사회책임경영 실천	93
1) 사회책임경영 목표수립	93
2) 사회책임경영 실천	94
5. 지배구조	97
1) 지배구조개선 실행	97
2) 지배구조 실행항목 설정	98

6장 | ESG 평가항목 99

1. 환경요인의 평가	99
1) 배출물 관리	99
2) 자원 사용	100
3) 환경 및 천연자원	100
2. 사회평가 항목	101
3. 지배구조의 평가	107
1) 다양성	107
2) 독립성	107
3) 임기	107
4) 역할의 합리성	107
4. 중소기업의 ESG 실행과제	108

ESG 평가보고서 작성요구 항목 표 111

RENEWABLE ENERGY INFOGRAPHIC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핵심 매뉴얼



1장 /

자율이 아닌 규제로 다가온 ESG

1. 자발적 실행이 아닌 법과 규제의 ESG

과거 기업경영의 목표는 환경 문제와 사회적 원가가 발생하더라도 재무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제품의 판매뿐 아니라 생산까지 힘들어진다. 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은 기업들 사이에서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 없이는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한 기업의 ESG 경영활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미래 지속적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인프라, 재정 투입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ESG 경영에 대한 인식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이 시급한 주된 이유는 대기업 및 협력업체의 요구와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특정 요

건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 글로벌 원청기업의 ESG 준수 요구 강화로 인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테슬라·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델 등의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지난 2019년 국제권리변호사회(IRA)로부터 일제히 소송을 당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공급 망에서 아동의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다. 코발트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광물이다. 전 세계에 공급되는 코발트의 절반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다.

IRA는 “이 기업들은 아동 노동자의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노동 착취와 연계된 공급망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송 당사자인 어린이 14명 중 6명은 광산 터널 붕괴로 사망했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미비 등 심각한 장애를 동반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테슬라는 ‘2019 임팩트 보고서’에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테슬라 배터리에 니켈 함유량을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줄여 100% 니켈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급망 내의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의 선정, 운영,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규 협력회사 선정 시 구매·품질, 환경안전, 노동인권, 에코파트너, 재무현황의 5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모든 영역에서 8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협력회사로 등록한다. 환경안전, 노동인권 영역은 RBA 스탠더드를 준용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2020년 기준 1,630여개 협력업체 중 ESG 평가가 좋지 않은 203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반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기업을 신규 공급사로 선정하는 등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공급망에 대한 ESG 요구 강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듯 기업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고 수많은 위험 노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사 ESG 평가사례 - 애플

ESG 관련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공급망 내 탄소중립 • 전제품 100% 재활용 원료 사용
평가대상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액의 93% 재활용 원료 사용
평가항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등 3개 영역 161개 항목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부여 및 100점 척도 • 항목별 불순은/위반/중대위반 등 3단계별 차감법 적용

협력사 ESG 평가사례 - 국내 S사

ESG 관련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전 협력사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평가대상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리스크 존재 협력사 대상 파일럿 평가
평가항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영역 161개 항목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사 실사 점검에 따라 개선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이제 기업은 ESG 경영을 모르고 경영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시대가 왔다. 글로벌 ESG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시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ESG 평가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의 중소기업체는 전문 인력 부족 및 관련 정보의 부재로 인해 평가항목을 만족시키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평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중소기업에게 ESG의 확산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이다. 대기업 공급망의 요구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기업에게 ESG는 위기이지만 신 시장을 개척하고 신사업을 창출 할 수 있으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기업위험과 ESG

1) 기업위험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경영에 대한 미래 상황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처럼 제한된 정보 내에서 경영자의 판단과 의사 결정은 기업을 취약하게 한다.

기업의 위험관리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게 됨에 따라 1990년 후반부터 발전하였다. 역사적으로 위험관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위험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상의 과정으로 미국과 독일에서 발전하였다. 오늘날 선진적 기업의 기업경영에서 위험관리는 필수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의 기업들은 위험상황의 계획과 위험관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영 환경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 오늘날 역동적 글로벌 환경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들의 기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나이키(Nike)가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1997년 불매운동을 맞아 매출의 37%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애플(Apple)은 전 세계 협력업체들의 근로조건, 인권문제, 협력업체 탄소 배출량 감축과 같은 환경보호 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가대상 기업은 애플제품 공급 전 단계에서 협력하는 업체들로 제품 디자인과 제조, 유통과 물류 그리고 소매상점까지이며 2019년은 약 1,10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나이키 사례는 기업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을 보여주었고 애플의 사례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인권·노동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품의 품질

개선과 같은 근본적 활동 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 대한 대표적 사례이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글로벌 위험의 대부분은 재무적 위험이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적, 사회적 위험 즉 비재무적 위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순간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막대한 손실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 금융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은 투자자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가사들은 '비재무적 리스크 평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ESG 소송사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집단 소송은 GMO 식용유를 100% 천연 식용유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이 소송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런 유의 분쟁은 기업의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소송은 원재료 공급업체가 노예 노동 또는 아동 착취 등을 통해 원재료를 생산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기업이 원재료 공급업체의 ESG 준수 여부에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페루 농부와 전기생산회사와의 분쟁에서는 전기생산회사의 배출가스가 거주지 인근 산의 빙하를 녹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농부가 수해 대비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환경문제에도 소송이 빈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자회사의 ESG 준수 여부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에 대한 소송은 글로벌 기업의 아프리카 소재 자회사가 원유 유출, 토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통해 환경피해를 야기하였다며 지역 주민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모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ESG 리스크에 대한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ESG 리스크에 대한 주요 관리지표

영역	지표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6가크롬 기준치 초과
	질소탱크 폭발
사회부문	탄소배출량 증가
	근로자, 노동자 사망
	근무환경 문제
	직원부당해고
지배구조부문	파업
	제품불량(소비자 문제)
	경영진 주주제안권 차단
	오너 고액연봉
	주주평등원칙 위반
세무조사 및 횡령	

3) 기후변화·탄소국경세와 ESG

기업의 ESG 경영에 따른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있어서 협력사 입장의 핵심 사안은 환경(E)과 사회(S) 부문이 우선된다. 환경(E)적 측면에서 대기업은 제품을 함께 만드는 업스트림 협력사와 제품을 운반

하는 다운스트림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에너지 관리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의 방출 등을 관리해야 한다.

2021년 네덜란드 법원은 '지구의 벗'이라는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셸(Royal Dutch Shell)에 CO₂ 범위 1, 2, 3 그리고 절대배출량 45% 감축 판결을 내렸다. 1986년에서 2021년 5월까지 전 세계 1,841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50% 이상이 2015년 이후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서는 원료가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광물인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을 유럽지역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비를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ESG가 기후 위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비단 개별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인류의 생존의 문제의 해결방식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ESG는 소비자, 투자자,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규제기관까지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되는 전 세계적 적용 원칙이자 피할 수 없는 조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준법경영과 ESG

2021년 글로벌 최대 투자운용사 블랙록의 래리핑크(Larry Pink)가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기업 사업전략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이사회 논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으로 삼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는 2020년 서한에 이어 이젠 투자의결권 행사를 통해 ESG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블랙록 CEO의 의지 표명은 ESG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 195개국 만장일치로 체결되었

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효력이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ESG와 기후변화 이슈



현재 ESG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나아가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ESG 반영이 자본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ESG를 고려한 투자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이제 기업은 ESG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향상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와 대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란 부작용을 얻었다. 2022년 중소기업현황(2020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산업군의 기업체 수는 7,295,393개인데 중소기업이 7,28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이다. 또한 매출액은 전체산업이 56,599,655억원이고, 중소기업은 26,733,019억원으로 47.2%인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6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20%가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거래처의 ESG 요구 수준 추이는 50.8%가 ESG 요구 수준(요구 정보량·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ESG를 요구한 거래처 유형으로는 대기업이 80.6%, 해외거래처가 28.2%라고 답하였다.

3. ESG 경영과 기업가치제고

1) ESG경영

ESG 경영이란 ESG로 대변되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기업의 경영전략에 통합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ESG 투자가 저성장 시대에 투자자가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ESG 경영은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서 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ESG는 환경 측면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배출 절감, 나아가 탄소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환경오염/환경규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자원과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책임 있는 구매와 조달 등에 관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사회 측면에서는 고객 만족, 데이터·프라이버시 보호, 인권·성별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근로자 안전 등에 관한 이슈를 포함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뇌물과 반부패, 사회적 기부,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공정경쟁 등에 관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ESG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제적 차원의 ESG 활동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적 차원의 ESG 활동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이행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각 기업들이 속한 산업군에서 당면한 ESG 추진에 대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ESG 경영 필요성 증가

ESG 경영전략은 기업의 비전 및 목표를 ESG 관점에서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 전략이나 실행 체계, 세부 실행 과제 등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의 실행과제로는 ESG 규제에 대한 대응과 ESG가 기업의 투자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보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추진할 것인지도 기업들에는 ESG 경영전략의 주요한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Business Round Table)은 기업의 목표를 주주 최우선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 정의하는 선언을 하였다. 주주 중심주의로 돌아가던 기업의 경영을 주주, 소비자, 임직원, 정부, 협력사 등 기업과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 ESG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1) 고객과 소비자의 인식변화

ESG 경영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고객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은 ESG 핵심요소를 갖춘 기업

과 브랜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실제 구매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의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탄소감축 정책	 한국	2050 탄소중립
	 EU	2050 탄소중립-탄소국경세 도입
ESG 정보 공시 의무화	 한국	2030 전 코스피 상장사
	 EU	2024 모든 대기업(250인 이상, 매출 4천만€ 이상, 총자산 2천만€ 이상), 비 EU법인의 EU자회사
규제 강화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화
	 EU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화

(2)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권에서는 재무와 비 재무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여신활동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식 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기업가치에 대한 리스크로 인식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반면 ESG 우수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금융권 역시 근본적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리스크 관리

폐 선박 판매를 증개한 영국 기업이 선박 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

고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에서 해당 중개기업은 영국 항소법원에 자신은 피해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기업의 주의의무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중개기업도 '위험의 생성(creation of danger)'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보고서는 이 소송은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경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리스크 관리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 또는 기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리스크와 투자자의 관심, 정보공개 및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해 지는 추세이다.



글로벌 리스크의 증가

2021년 세계경제포럼은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영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를 예측하였다. 현존하는 위험으로는 감염병 확산, 생계위기, 극심한 기후변화 등 사회나 환경 리스크가 상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3~5년 내의 위험으로는 자산의 버블 증폭, 물가불안, 원자재 가격 충격, 부채위기 등 중소·중견기업이 우려할만한 리스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의 관심 증가

ESG평가기관인 Sustainalytics에서는 기업의 평가점수를 비롯해서 경쟁사들과의 점수 비교, 해당기업의 중요한 ESG 이슈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투자자들과 평가자들은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중소기업 ESG 대출

은행들은 기업의 대출기준에도 ESG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외형적인 기준보다 내실 있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우선적 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ESG 기준을 반영한 기업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이중 국민은행의 경우 석탄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3) ESG 경영활성화 방안

ESG 경영은 더 이상 이익과 기업 성장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보다는 제품생산과정과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타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 수요자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주요 고객인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수요자(납품처) 지향으로 ESG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2) 거버넌스, 성과관리체계가 중요하다.

기업들은 CEO평가에 ESG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추천, 지속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이사회의 투명한 지배가 ESG 평가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3) 공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같은 글로벌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시기준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공시기준에 주의를 기울이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4) 측정, 평가를 통한 성과의 입증 필요하다.

다양한 글로벌 평가체계를 활용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측정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균형 잡힌 지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ESG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모든 요소를 고르게 선택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E 이외에도 S, G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노력이 있어야 한다.

(6) 공급망에 더 큰 책임이 필요하다.

기업의 전통적인 책임영역 뿐 아니라 원자재 및 제품 폐기까지 수요자, 공급자에 이르는 상하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7) 차별화, 경쟁력 전략이 필요하다

SAB Miler는 모잠비크의 제1농산물인 Cassava라는 현지 원료로 맥주를 개발하여 아프리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였다. ESG의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시킨 좋은 사례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는 기존의 경영체계를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ESG 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ESG 프

로젝트는 경영체계의 가장 최상위 개념인 ESG 투자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도출과정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 하는데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환경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 공공기관, 고객사 등 중소·중견기업 이해관계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ESG정보를 수집하여 거래관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은 이미 기업의 ESG정보들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는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	토양오염 제재
지자체	대기, 수질, 소음 관련 제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장애인 고용위반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 지위 남용, 담합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회계감리제재, 횡령, 배임
금융위원회	금융권 관련 기관 임원, 직원 제재
한국소비자원	리콜, 위약 정보
식약처	식품, 약품 안전 제재 및 회수 조치

공개된 기업 ESG 정보의 예

4. ESG 정부정책

정부의 ESG 지원정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최근 국내외 다양한 민간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교육, 평가 등에 참여하며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는 민간을 중심으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공시와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ESG를 확산하기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중소벤처기업부, 2021)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ESG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하여 K-ESG 가이드라인(정부부처 합동, 2021)을 발표하였다.

2021년 8월에는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조달사업 거래처 선정 및 사업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2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절차를 담은 법률로 중장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별로 시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ESG의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절반 수준으로 인식도가 낮은 편이고 ESG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부의 규제라는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ESG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선진국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ESG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보다 손실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ESG의 확산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ESG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중소기업은 산업 밸류체인 내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ESG 측면의 리스크를 규명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나 그린뉴딜정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산업계 공급망 ESG 공동대응 이니셔티브



미래는 ESG경영이 돈이다!

ESG경영



● 윤리경영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회공헌

사회공헌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장 /

ESG와 주요개념

1. ESG의 역사 및 배경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투자’, ‘사회적 책임투자’, ‘지속가능 경영’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활동에 통합시키는 것이 라면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의 정보가 ESG이다. 즉 CSR은 자발적 후원이나 기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 반면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활동을 세분화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를 이끄는 것이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지도자 정상회의(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04)이며 UN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이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장 55명에게 ESG를 자본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초청하는 편지(Who Cares Wins-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를 발송하면서 부터이다.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개념은 호워드 보웬(Howard Bowen) 교수가 1953년 처음 제기한 이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발전해 왔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본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 이후 이 수익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선적이고 기부적인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본업을 수행한 후 이행하는 활동이며 ESG는 기업이 본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CSR이란 기업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인 종업원, 주주, 소비자, 공급자, 정부, 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CSR 활동 추진을 통해 법적 책임준수, 이해관계자 책임경영,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리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시정을 요구한다.

ESG는 기존의 CSR 개념이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관심사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용하고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과 상호 작용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뜻을 같이한다.

반면 ESG 실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은 기존의 개념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의 지표이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행을 평가하고 성과를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즉 ESG는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CSR과 구분할 수 있다.

2)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1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논의를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노르웨이 브룬트란트(Brundtland) 환경부 장관이 주도하였으며 미래세대의 필요에 대한 충족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하게 자연자원과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합친 개념으로서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왔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윤리, 환경, 그리고 사회문제 등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경영활동 수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향상시키려는 경영기법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더 좋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였고 2015년 UN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전 지구적 목표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총 17개이며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기아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과 웰빙,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평화와 정의제도 그리고 파트너십이 그 목표이다.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을 말하는 것이고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한다는 것은 대기업 상장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협력사까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 관련 주요 공시기준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인권·산업안전·투명경영과 같은 보편적 주제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한다. 기업의 경영이 지속가능하려면 기업의 비즈니스 전후방에 걸친 협력사, 공장 혹은 매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그리고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성'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다.

국외의 경우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예정이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해당 국가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급망의 환경(E), 사회(S) 이슈를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 EU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의 경우 2023년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UNGC 10대 원칙 + SDGs



인권, 노동 측면의 주요 원칙

노동측면의 원칙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지지, 강제노동·아동노동·고용 및 업무차별의 철폐 등이 있다. 인권측면에서는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특히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UN조달청의 UNGC 가입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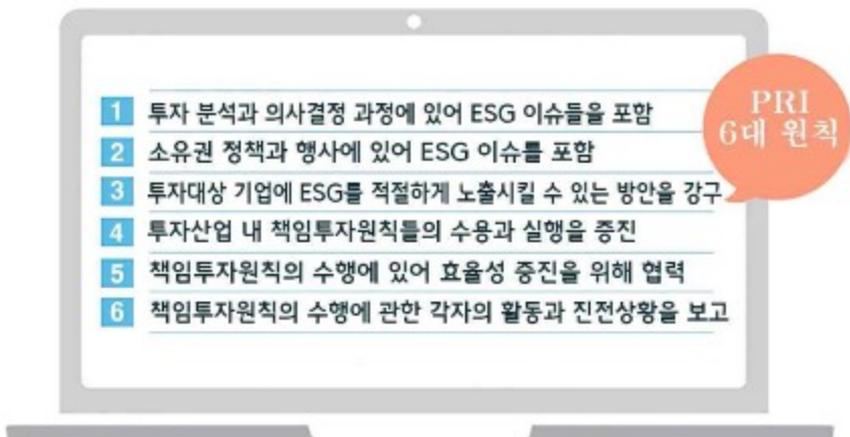
UN 조달시장이나 국제기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UNGC 참여가 적극 권장된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 UNGC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10대 원칙을 적용한 ESG 금융상품

ESG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은 '투자'다. ESG를 잘하는 기업의 수익률과 회복탄력성 등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에 UNGC 원칙을 반영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3)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

2006년 UN PRI에서 책임 있는 투자원칙을 공개하며 ESG를 고려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ESG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UN PRI는 UN이 투자자들에게 환경과 사회에 책임 있는 투자를 권고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 기관이다. 현재는 규모가 커져 UN에서 독립하여 PRI라는 이름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P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임 있는 투자원칙이란 ESG의 요소들을 고려하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고 이러한 흐름을 선두해오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과 탄소배출 감축

최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맞춰지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탄소세 인상 요구

IMF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서 현재 CO2 1톤당 현재 2달러 수준의 탄소세를 2030년까지 75달러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전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BIS(국제결제은행)의 Green Swan

2020년 BIS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Green Swan 이라고 정의하고 탄소세 등의 정책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므로 중앙은행의 과감한 개입을 촉구하였다.

그 이유로서 기후변화의 두 가지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세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인 Transition Risk이다. 또 하나는 홍수, 산불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 즉 Physical Risk이다. 이 두 리스크가 생산원가, 매출 등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TCFD(Task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그린스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의 요청에 따라 2017년 FSB(금융안정위원회)는 TCFD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다.

4)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보고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은 유엔의 지원을 받는 독립된 비영리 조직으로 2006년 설립되었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조정 기능을 제공한다. ESG는 PRI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뉴딜을 표방하며 강력한 환경보호를 기치로 내세우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실행에 옮겼다. EU 또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EU 텍소노미'등을 발표하여 미국과 EU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우위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독려하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에서 촉발된 주도권 경쟁이 기업들로 하여금 ESG 경영의 도입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네슬레, IBM 등 61개 글로벌 기업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와 ESG를 핵심 경영지표로 삼는다고 선언하였다.

EU는 2022년 2월에 일명 공급망 실사법인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Annex to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하여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환경 등의 ESG 요인에 대한 실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EU의회와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경우 2024년부터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정부가 발효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완화와 전기차 시장의 가치 사슬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의 주목할 만 한 점은 '탄소세'와 같은 규제 내용이 아닌 탄소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메커니즘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치사슬 내의 공급망 협력사의 ESG경영은 사실상 의무화될 예정이다.

SK, 삼성, LG, 한화, KB, 효성, 롯데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의 2021년 신년사에도 역시 ESG경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ESG 경영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중 약 30~35%에 해당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에 대해 실질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인 협력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이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상당수는 ESG 투자를 수행할 때 유엔 책임투자원칙과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를 함께 고려한다.



5)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모임인 BRT(Business Roundtable)가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으로도 불리는 해당 선언은 기업의 목적을 '주주 최우선'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로 전환시켰다. 2019년 BRT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BRT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0대 대기업의 협의체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로비 단체로 파급력이 큰 단체이기 때문이다. 해당 성명에 서명한 주요 CEO는 181명으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애플의 팀 쿡, AT&T의 랜달 스티븐슨, 포드자동차의 제임스 해커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블랙록의 래리 핑크 등이 있다.

'기업은 고립된 별도의 개체가 아니고 사회, 협력사, 투자자,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는 기업 생태계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사회(Society), 파트너(Partner), 투자자(Investor), 고객(Customer), 직원(Employee)의 첫 글자를 따서 SPICE라고 한다.

2017년 차파트너스(Tcha Partners) 자산운영 측은 애플(Apple)에 편지를 보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이폰(iPhone)을 남용하는 것은 교실에서의 주의력 부족, 다른 사람과의 공감 장애, 우울증, 수면 부족,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Eccles, 2018). 차파트너스는 캘리포니아 교사퇴직연금(CalSTRS)과 협력하여 애플에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1년 3분기 블랙록(BlackRock) 스튜어드십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록은 버크셔 해서웨이, 엑손모빌 등 기후문제에 소홀한 기업에 대한 위임투표(proxy voting)에서 255명의 이사진 재선임에 반대하였다.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빠르고 싸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수 없고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선택하는 기업 즉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주고 소비자에게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로 발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제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ESG 활동의 참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의한 잠재적 침해

인 권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산업안전 관련
환 경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윤 리	뇌물수수, 청탁, 불공정거래



2. ESG 세부항목

1) 환경

환경(Environment)은 주로 기후변화, 천연자원, 환경오염, 쓰레기, 기회와 정책 등에 관한 것이다. 탄소배출량 관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탄소 중립이나 제로라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수립하고 이행 과제들을 정비하고 있다.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국내 사업장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전문기관과의 신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한 협업을 추진하거나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 밸류 체인으로서의 관리 영역을 확장하여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신시장 진출 영업에 있어서도 기후 및 환경 경영을 활용하여 ESG 경영전략을 본격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미국뿐 아니라 EU,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함으로써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개념이다. 중국 역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2) 사회

ESG에서의 사회(Social)는 주로 인적자본과 생산책임,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직원 보호와 주주와 소비자 등에 대한 이익을 이행하고 산업, 시장과 사회의 책임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경영 전략을 버려야 하고 소비자, 사회에 대한 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안전은 CO-VID19 사태 이

후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화두 중의 하나로 인사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인재확보가 중요해졌다.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정에서 그것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리스크로 발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 특성도 있다. 제조 및 생산, 유통 기반의 기업들은 건강한 노동환경과 임직원들의 안정된 고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ESG 경영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3) 지배구조

ESG에서의 지배구조(Governance)는 주로 기업지배구조나 기업 형태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지배구조는 의사결정 구조의 운영, 지배구조의 투명성, 독립성과 내부 통제, 이사회 구조, 감사의 선진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분명한 체계를 정립하여 CEO와 최고 의사결정구조와의 건강한 기업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간 유기적인 책임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지배구조 영역의 핵심 사안이다. 지배구조는 투명성과 독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과정이고 조직 내 또는 대외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경영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다.

3. ESG와 정보공시

1) 정보공시

국내외 ESG 정보공시 동향과 관련하여 여러 공시기준과 이니셔티브가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 특히 기업의 관련 실무자 입장에서 수많은 공시기준과 이니셔티브를 전부 이해하고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ESG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몇몇 국가의 주도로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ESG 공시기준으로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Standards가 존재한다. GRI 외에도 블룸버그와 록펠러 재단 등이 설립한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는 2018년 77개의 세부 산업별로 ESG 정보공개 지표를 제시하였다.(SASB, 2019)

2020년 9월에는 ESG 공시 표준을 정하는 5개의 주요기관인 GRI, SASB,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협업하여 ESG 정보공시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착수를 발표하였다. 이를 2가지로 분류하면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GRI와 EU의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다.

반면 투자자 관점에서 비 재무 정보의 재무적 가치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와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다. 따라서 현재 ESG의 공시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의 해계모니 주도권 경쟁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1월 14일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 조치로써 한국거래소가 2021년 1월 18일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지침)'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와 관련한 보고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시하였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 공시를 규정하였는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기업들의 ESG 관련 정보공시기준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EU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와 GRI는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이용자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요구하고 있으며 IFRS 재단의 ISSB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ESG 정보공시의 목적을 '투자자에 공개'로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SG관련 시장에 진출한 회계법인은 ISSB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존의 컨설팅 업계는 GRI 표준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SG 공시제도

▶ 우리나라는 지배구조 보고서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2026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된다. 지속가능 보고서의 경우는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전 상장회사에 의무화된다.



2) ESG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1) UNEP FI(United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들을 고려하는 리스크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이 되도록 목표하고 UN Global Compact와 함께 이후 UN PRI의 토대가 되었다.

(2) UN Global Compact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은 기업이 그 운영 및 경영전략에 반영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의 제시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 UNEP FI와 함께 이후 UN PRI의 토대가 되었다.

(3) OECD Guidelines

1976년 제정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게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0년에 개정되어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이 개도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회, 환경, 경제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공 한다.

(4)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DP(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 기구로 전 세계 9,6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경영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공시정보를 분석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매년 발표되는 CDP 평가결과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5) 적도 원칙 (EPs, Equator Principles)

‘적도 원칙’은 적도 부근의 개도국 대상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개도국에 대한 금융투자에 있어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6) UN PRI

기업에 대한 투자 시에 투자자로 하여금 ESG와 관련된 6개 투자원칙을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7)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0년 발표한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후 국제적 표준을 인정받고 있고 다른 ISO 인증과 달리 인증제도는 없다.

(8)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할 기업의 비 재무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여 SASB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였다. 2021년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와 합병을 선언하며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2022년 IFRS 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

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에 공시기준을 통합하였다.

(9) RE100(Renewable Energy 100)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미트 그룹과 CDP의 주도로 발족되었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10)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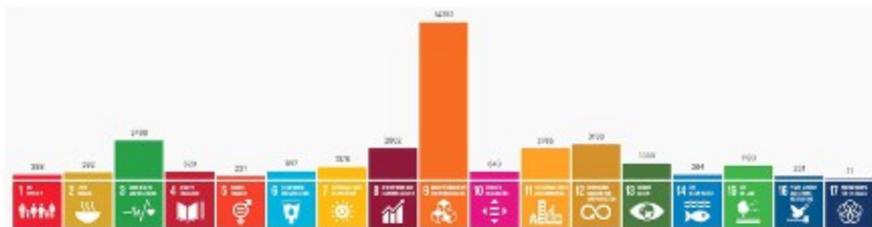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가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 공개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설립한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2015년 발족한 태스크 포스다.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다.

(11)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는 2015년 CDP, UNGC, WRI, WWF(세계자연기금) 등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되었다. 탈 탄소화를 목표로 산업화 시대와 비교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목표(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12)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질병·교육·여성·아동·난민·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에너지·환경오염·물·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주거·노사·고용·생산 소비·사회구조·법·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이다.



(13) EcoVadis

2007년 설립되어 2022년 기준 약 160개국 75,000개 글로벌 공급 기업 대상 연간 ESG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플랫폼으로, '평가 중심'의 이니셔티브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평가관리를 위해 인증 받으며 특히 B2B 기업 대상 공급망 편입 시 자격요건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coVadis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 파트너(고객사)에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에코바디스의 인증평가 등급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3) 국내외 평가기관 동향

(1) ISO(Inter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규격은 UN의 SDGs의 개발 목표에 따른 표준규격을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규격들이 존재한다. 특히 목표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 13: 기후 행동 등 ESG 경영과 관련된 규격을 포함하여 약 33,785(2023년 8월말 현재)로 제정되어 주기적인 개정과 관리가 되고 있다. 요구사항들은 품질, 안전 및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양을 통해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제품과 서비스가 변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2)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는 1999년부터 ESG 평가를 제공해왔으며 초기 ESG 분야를 개척한 RiskMetrics, Innovest, KLD 등을 인수합병해서 2011년부터 ESG 리서치를 독자적으로 제공한다. MSCI 평가는 35개의 ESG 주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가중치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기업의 중대한 위험 또는 기회를 생성할 수 있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동종 업계의 표준 및 성과와 비교하여 AAA부터 CCC까지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MSCI의 ESG 등급은 산업별 중요도를 이슈와 초점을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동일한 산업군은 동일한 조직상황 및 외부 환경에 노출 빈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요소는 유사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설정되었다. 특히 투자자가 ESG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고 이러한 요소를 투자 포트폴리

오와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종 ESG 등급에 도달하기 위해 개별 환경 및 사회적 주요 문제 점수와 거버넌스 기본점수의 가중평균이 계산된 다음 ESG 등급의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정규화된다. 탄소 집약도, 물 집약도, 재해율과 같은 외부적 영향에 대한 산업별 범위와 평균값을 살펴보고 정량적 모델을 통해 산업별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한다.

(3) S&P Global

미국의 금융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S&P Dow Jones)와 스위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사인 로베코샘(RobecoSAM)은 1999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를 개발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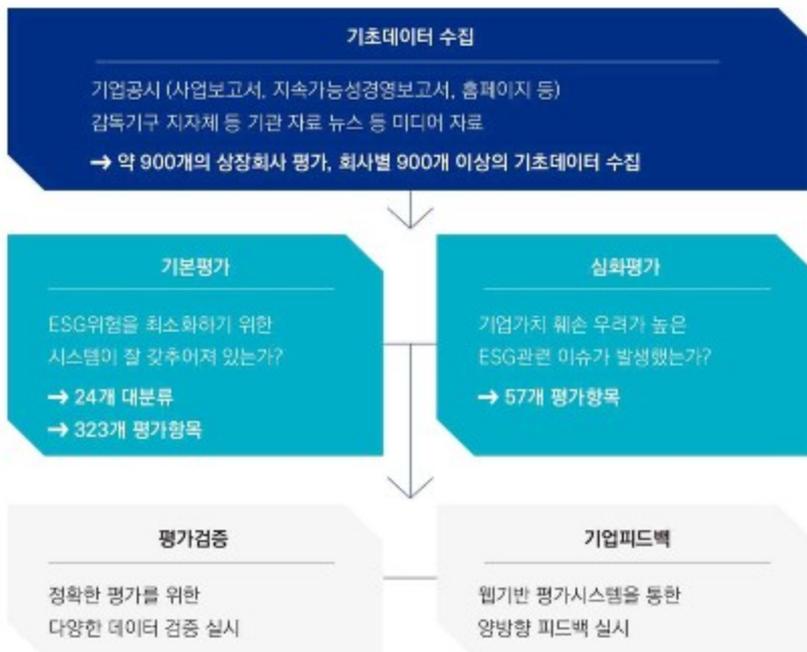
전 세계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환경 및 사회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S&P의 ESG 평가는 2022년 9월 새로운 분석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ESG 평가 결과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ESG 평가점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ESG Score는 투명한 양적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한 정량평가(1-100)를 기반으로 하며 미디어 및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평가기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인 이벤트(예, 기후위험 및 자연재해, 노동쟁의, 경영상의 과실 등)의 결과를 통해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해당 조직에 의해 검증 가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에 한 하여 점수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한다.

(4) 한국ESG기준원

한국 ESG기준원의 평가모형은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국내 법규와 경영 환경을 반영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본평가(24개 대분류 323개 핵심 평가항목)와 심화평가(57개 핵심 평가 항목)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 검증을 거쳐 웹(Web) 기반 평가시스템을 통해 피드백하게 된다.



한국 ESG기준원의 평가모형은 자체적인 모범규준을 설정하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ISO 26000,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인증제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등)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ESG 등급은 통합등급, 환경부문, 사회부문, 지배구조부문으로 구분되며 기본평가는 기업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기본평가는 기업 특성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심화평가는 부정적 ESG 이슈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평가문항은 해당 기업만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5) 서스틴베스트

서스틴베스트의 ESG평가모형은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설계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를 포함한 각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각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분야(G)에 가중치가 다소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스틴베스트의 ESGValue TM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ESG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평가·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와 영향을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반영한다. 그리고 국내 ESG 관련 정책,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해서 개발된 평가 모델이다.

이미 대기업은 협력사 선정 요건으로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ESG 경영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예비 협력사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만났을 때 하나 같이 원하는 바는 고객사인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단발적인 현금성 인센티브보다 지속적인 매출 확보가 중소기업에게는 훨씬 큰 인센티브였다.

4.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ESG 대응 이슈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2022년 2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핵심·필수 품목에 대해 기후변화, 불법노동을 포함한 ESG 요소에 주목할 것을 언급하였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까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제약, 섬유 등 산업별로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협력사들 역시 공급망 및 거래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별 이니셔티브의 ESG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은 전 세계 91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이다. 전 세계 7,000개가 넘는 기업이 CDP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 탄소경영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의 경우 목표설정기업의 73%인 480개사가 협력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감축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 협력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특히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의 경우에는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 ESG 리스크 상위 업종

S&P신용평가사,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등은 보고서를 통해 ESG 리스크가 높은 산업을 선정하였다. 주요 산업분야는 석유화학, 광

물, 석탄발전 등이며 반도체, 자동차업종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2) 신사업 기회의 창출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중소·중견기업은 ESG 측면의 위험요소를 규명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기회 탐색 방법의 하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나 그린뉴딜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이 투자되는 그린뉴딜 정책의 경우는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볼 기회가 많이 있다.

3) 기업과 인권

전 세계의 해결과제를 제시한 SDGs의 90% 이상은 인권 기반의 문제 해결 방식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인권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여 인권 친화적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권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인 이슈이므로 ESG 전반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배구조 개선

중소·중견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교육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의 합리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경영권 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이 될 수도 있다.

RENEWABLE ENERGY INFOGRAPHIC



A. Renewable

Renewable energy is energy generated from natural resources.



B. Energy

such as sunlight, wind, rain, tides and geothermal heat.



- RENEWABLE
- RENEWABLE
- RENEWABLE



SUN, WIND, RAIN, TIDES AND GEOTHERMAL HEAT

A. Renewable

Renewable energy is energy generated from natural resources.



B. Energy

such as sunlight, wind, rain, tides and geothermal heat.



3장 /

ESG 관련 국제표준분석

비재무적 관점에서 기업들을 평가하고 선별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초기의 비재무적 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이익보다 우선하였으며 평가에 활용될 적절한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은 ESG 활동을 대세 중의 대세로 만들었다. 이는 너무 빠른 속도로 경제의 이윤을 쫓아온 전 세계에 주는 위험에 대한 메시지이며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ESG 평가기관은 막강한 권력자로 연기금, 국부펀드 등 대규모 자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ESG 정보 공개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가 지금처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투자자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투자수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환경과 사회를 지키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원칙이 ES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목적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는 기업목적에 ESG가 내재화되어 미래사회에서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로 자본조달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확보와 상생이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핵심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측면에서 기업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ESG 경영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관련된 많은 금융기관들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제도를 도입했고 UN은 2006년에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을 통해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2021년 발표에서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ESG공시 의무화가 도입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고 하였다.

1. ESG 관련 국제표준 분석

1) ISO와 국제인증

ISO는 1946년에 국제기구로 설립되어 전 세계에서 지적활동이나 과학·기술·경제활동분야에서 국가 상호간의 협력과 표준을 정의해 왔다. 1926년에 설립된 ISO의 전신은 기계공학분야에서 I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izing Associations)를 표준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경제개발 완성기에 KS만으로는 국제무대의 경쟁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는 환경에 따라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확대되었다.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이다.

ESG 경영을 위한 각 부문별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의 경영시스템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 대응을 위해서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을 활용해 기업 내 관련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분야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IEC 27001:2013(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30415(인적자원관리)를 참고하여 기업 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ISO 30415(인적자원관리)는 경영시스템 표준이 아니니 기업 내 실행을 위한 가이드선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거버넌스 분야는 ISO 37301(준법경영), ISO 37001(반부패경영)을 통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전체적으로는 ISO 26000(사회적 책임)을 통해 ESG 경영을 위해 기업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다.

ESG와 관련된 국제표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ESG 경영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표준은 ISO 26000(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이 ESG 경영 전 분야에서 이행해야 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ISO 26000 이슈에서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은 ESG 경영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ESG 경영을 시스템화 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든 경영시스템 표준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1) ISO 통합경영시스템

① HLS(High Level Structure)

ISO 규격들은 2015년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이 개정되어 공표되면서 변혁적인 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주요핵심 개정내용 중 HLS(High Level Structure)의 개념은 관련된 ISO 규격들을 쉽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SO의 경영시스템 표준의 첫 번째 특징은 모두 HL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2015년 대표적인 시스템표준인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개정하며 통일된 요구사항의 번호와 제목, 동일한 텍스트, 동일한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하여 본문을 구성하였는데 이를 HLS라고 한다.

② 리스크 기반의 사고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 개정에 따른 또 다른 개념으로 RBT가 있다. RBT(Risk Based Thinking)는 '리스크 기반의 사고'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영하면서 사전적·예방적 접근방법으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평가하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경영 환경의 위험 및 실패를 최소화하고 기회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갖게 된다.

③ 프로세스(Process)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 개정에 따른 또 다른 개념으로 '프로세스'가 있다. 프로세스는 입력사항을 위의 RBT 개념에 반영하여 출력사항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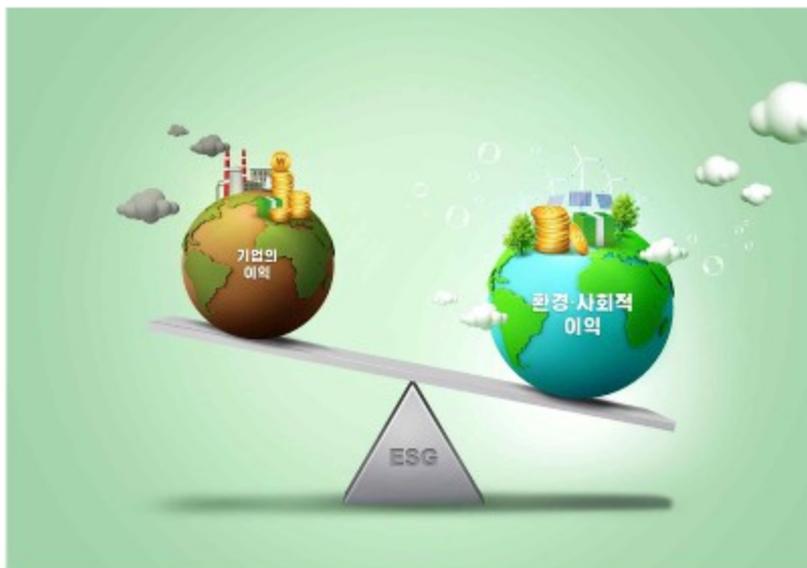
다시 말해 입력사항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의 유형을 식별, 평가하여 ESG 관리 요소를 결정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문서화, 자원(인적, 물적)의 결정 및 사실적인 활동(운영)을 통해 출력사항인 ESG 경영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통합경영시스템은 관련된 각각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갖게 된다.

④ P-D-C-A(Plan-Do-Check-Act)

ISO 모든 규격은 P-D-C-A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Plan(계획)은

이전 문제점 및 실적의 분석을 통해 수립된다. Do(실행)는 계획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Check(확인)는 계획과 실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성과를 파악한다. Act(조치)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Plan(계획) 단계로 전달됨으로써 재발 방지 등의 시정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이를 P-D-C-A Cycle이라고도 부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2) 경영시스템 표준 분석

기존 ISO 표준이 품질, 환경 등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어 비즈니스 활동으로 연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통합적 관리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HLS(High level structure)로 통일하게 되었다.

HLS(High Level Structure)는 각각의 경영시스템 표준(ISO 14001, ISO 50001, ISO 9001, ISO 45001, ISO/IEC 27001, ISO 37301, ISO 37001)을 통일된 구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ISO 경영시스템 표준의 본문들은 모두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본문 1절은 적용 범위, 2절은 인용표준, 3절에서는 각 표준의 용어 정의가 나오며 4절부터는 HLS에서 규정한 경영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본문 구조로 구성된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가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표준과 달리 경영시스템표준은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그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존에 경영자나 주주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법적 준수 의무를 포함하여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한 활동들의 효과성, 목표 달성도, 성과 정보, 자원의 적절성,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지속적 개선 등 최고경영자가 경영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경영 검토의 범위가 넓어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조직에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비즈니스 리스크와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HLS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트렌드와 비교하였을 때 리스크가 있다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회 요인이 있다면 적극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넷째, 해당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PDCA(Plan-Do-Check-Act)를 강조한다.

PDCA는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과 피드백을 통해 이를 수정해

나가면서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통한 업무개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① ISO 9001

1980년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품질경영시스템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품질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증, 제품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구사항 등으로 정의하였다.

ISO 9001은 제품의 설계·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에서 품질보증 모델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인증시에 조직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성과측정의 도구로 활용되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조직이 품질경영의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척도가 된다.

②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2015 환경경영시스템은 2015년 ISO(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최신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ISO 기술위원회 ISO/TC 207 및 관련된 소위원회에서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조직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경쟁우위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발적 경영시스템이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관포럼)에 가입한 인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KAB(한국인정지원센터)이 인정기관으로서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에 대한 인정 및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의하면 “미래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 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 사회 및 경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필수적 요소”라고 제안했다.

또한 더 엄격한 법률,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비효율적 자원 사용, 부적절한 폐기물의 관리, 기후변화, 생태계의 파괴 및 생물다양성의 훼손 등으로 진화하여 왔으며 조직이 지속가능성의 환경 분야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환경경영시스템의 목표는 조직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니즈와 균형 있게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조직이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조직의 규모나 형태, 성격(Nature)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 과정(원재료 입수, 제작부터 최종 폐기까지)의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ISO 14001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은 이해관계자 니즈 및 기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니즈와 기대를 파악하며 해당 니즈와 기대가 준수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CEO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특히 경영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경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리스크와 기회를 사전에 선별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에 따라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발전해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개선과제를 도출할 때에는 환경 관련 내·외부 중요 이슈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중요 이슈는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하며 환경적 요인(기후, 공기질, 수질 등)과 문화, 사회, 정치, 법, 규제 등의 외부상황, 내적요인(제품 및 서비스, 전략, 조직문화 등) 등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기존의 부분적 차원에서 수행하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사적 관리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문제인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으로 기업의 인증을 통해 경제적 이윤 창출과 환경성과 개선을 두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인

환경경영시스템은 기업 인증을 통해 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ISO 26000(사회적 책임)

ISO 26000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소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별개로 볼 수 없다. 다변화되고 급변화되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이에따른 결과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해결, 경제성장과 개발에 따른 지구환경 위기 대처 및 지속가능한 생존과 인류번영을 위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로 시작해 2004



년 ISO에서 표준개발이 결정되었고 2005년 3월 1차 총회부터 2010년 5월 8차 총회까지 5년에 걸쳐 개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이 제정되었다.

ISO 26000은 ESG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

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는 환경, 사회의 모든 이슈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부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

ISO 26000은 CSR과 같이 사회적 책임 개념과 원칙하에 조직 거버넌스·인권·노동관행·환경·공정운영관행·소비자이슈·지역사회참여와 발전이라는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ISO 26000이 발간되었고 우리나라는 2012년 8월 30일 KS A ISO 26000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④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유럽 인증기관 중심으로 제정된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민간 주도 규격이 2018년 ISO 국제규격으로 최초 제정되어 공표되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이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루어진다. 이는 조직상황에서 반부패 경영에 대한 인지는 TOP 조직에서 부터 솔선수범하여 전사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

ISO 37001:2016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과 같은 국제 협정과 국내 법률을 통해 부패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 만 아니라 조직으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부패는 심각한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및 정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빈곤을 구제하는 데 장애가 된다. 또한 부패는 비즈니스 비용의 증가, 상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초래,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 하며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⑥ ISO 50001(에너지경영 시스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 대량소비 산업체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 화와 원가절감을 위해 2011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이 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에너지 대량 소비 산업체와 건축물에서 의 표준화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서 산업 체의 에너지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ISO 50001은 경영책임 및 방침을 시작으로 기획(Plan)관리에서는 에너지기획을 수립하며 실행 및 운영관리(Do)에서는 종업원의 교육훈련, 조직 간의 의사소통, 문서관리, 운전관리, 에너지 설계, 에너지 서비스· 제품 등 공정관리, 장비 및 에너지원 등 에너지의 구매를 수행한다.

점검관리(Check)에서는 데이터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이행평가, 내부심사, 시정 및 예방조치, 기록 관리를 수행하며, 다음 단계로 에너지 성과 관리를 위해 경영검토(Act)를 수행한다.

ISO 50001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고경영자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지

원에 대한 의지 표명, 에너지 방침의 규정, 그리고 에너지경영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에 대한 설명, 기업 내부에 에너지경영시스템 내재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인식 개선 활동, 내·외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문서화와 문서관리, 모니터링과 측정/분석,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로 설명된다.

ISO 50001은 에너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룬 표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환경경영에 대한 대표 국제표준인 ISO 14001과 함께 실행하는 것이 좋다.

GREEN ECO



중소기업 ESG 평가지표 통합표

구분	ESG	KSA	중소기업 ESG 경영
환경	환경경영	ISO 14001 ISO 50001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성과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이해관계자 대응		
사회	근로자	ISO 22301, ISO 27001 ISO 30405, ISO 4500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협력사/경쟁사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소비자		
	지역사회		
지배 구조	주주 권리보호	ISO 37001 ISO 37301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이사회		
	감사기구(재부)		
	공시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2)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주제 아래 지금까지 90여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되고 있어 그 기준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로 6개 항목에 18개의 핵심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6개 분류를 살펴보면 ESG의 환경과 지배구조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ESG는 CSR의 연장선상에서 경험치로 정리된 평가지표임을 알 수 있다. CSR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중 지배구조와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영역이 ESG에서 요구하는 사회에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사회책임 보고서인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CSR 활동이 세계기구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 제3자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CSR 활동을 객관화하여 평가하기가 쉽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회책임보고서를 통해 CSR 성과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 사회분야 등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CSR 성과의 공시 매체로 사회책임보고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2010년 출범한 국제기구인 GRI는 1999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참여하여 창설한 단체로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RI에 의해 제공된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정보는 물론 비재무적 정보까지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CSR 활동을 고양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Refinitiv

Refinitiv(2021)은 2002년으로부터 ESG 분석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450개 이상의 다양한 ESG 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시가 총액의 70% 이상을 다루는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ESG DB를 보유하고 있다.

Refinitiv의 평가방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고유한 ESG 평가 중요도 가중치를 통합하여 산업별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1~10까지 다르게 정

의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데이터 공개를 투명한 점수 척도로 기준 한다. 셋째, 회사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마지막으로 점수의 평가는 비 계산계층까지 흡수하여 계산한다.

Refinitiv ESG 평가 항목

영역	범주	평가지표
환경	배출	배출물, 쓰레기, 생물 다양성, 환경관리 시스템
	혁신	제품혁신, 녹색수익, 연구개발 및 자본지출
	자원 활용	물, 에너지, 지속 가능 포장, 환경 공급망
사회	지역 사회	모든 산업 그룹에 동일한 중요성 모든 그룹에 5의 중위수 가중치 할당
	인권	인권
	제품 책임	책임있는 마케팅, 데이터 정보보호, 제품 품질
	노동자	다양성 포함, 경력개발과 훈련, 근무조건, 건강과 안전
지배 구조	CSR 전략	ESG보고와 투명성, CSR 전략
	관리	구조(독립성, 다양성, 위원회), 보상
	주주권리	주주권리, 인수 방어

5)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CSI는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환경부분의 지표를 강화한 점이 장점이다. 다만 지역사회발전과 관련된 평가 이슈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평가 이슈가 부족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와 EU(유럽연합)에서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급망 이슈는 국제표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규제도 진행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평가지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MSCI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SCI의 ESG 평가지표가 가지는 강점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에서 중시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인 비즈니스 리스크 및 기회요인과 연계되는 부분이며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및 기회는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지표로 볼 수 있다.

둘째, MSCI는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사슬 내에서의 ESG 이슈 대응에 대한 평가가 약하다. ISO 26000은 ESG 경영을 위한 핵심주제(조직 거버넌스·인권·노동관행·환경·공정운영관행·소비자이슈·지역사회 참여와 발전)를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찾아내고 대응하라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모기업은 협력사의 근로자의 인권, 노동관행뿐 아니라 협력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협력사가 소비자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최대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한다. ISO 26000 기준에서는 MSCI의 이슈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지역사회참여와 발전에 대한 평가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ISO26000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본적인 필수서비스 및 교육 문화 제공, 부와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부분, 사회적 투자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하게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MSCI에서는 지역사회 관계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한 가지 이슈로 묶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6) RepRISK

RepRISK(렙리스크)는 대표 ESG 평가지표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평가지표로 1998년 평가를 시작하였다. RepRISK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와 UN-PRI와 파트너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ESG 평가기관중 하나이다. RepRISK ESG ratings의 평가 지표는 28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RepRISK의 ESG 평가 항목

분류		이슈
Cross-cutting issues		사회적 논란(제품 또는 서비스), 보건과 환경 이슈(제품) 공급망 관리, 국내법 위반, 국제법 위반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글로벌 오염
		지역(local) 오염
		환경, 생태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impact)
		자원 오남용
		폐기물 이슈
		동물학대
사회	지역사회	인권 침해와 이와 관련된 기업의 공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
		지역사회 발전 참여
		사회적 차별
	임직원	강제노동
		아동노동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
		노동자 차별
		직장내 보건과 안전
		열악한 고용 조건
거버넌스		부패, 뇌물, 착취, 자금세탁
		임원 보상 문제
		잘못된 의사소통
		사기(Fraud)
		탈세
		조세 최적화(tax optimization)
		반경쟁 관행(anti-competitive practices)

RepRISK의 평가지표 특징 중 타 평가지표에 비해 잘된 점은 크로스 이슈라는 항목을 통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체 이슈를 총괄 관리해야 할 항목들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망 관리,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 등의 내용이 크로스 이슈로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항들은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표상에 나타내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비자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크로스 이슈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사전에 소비자이슈에 대한 기업의 수준을 알기 어렵다.

2. ESG 관련 국내표준 분석

1) 한국ESG기준원의 평가지표

국내 ESG 평가 전문기관 중 한국ESG기준원은 전문성과 높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2003년 지배구조 평가를 시작하여 2011년부터 환경 및 사회 부문을 추가 ESG 통합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ESG 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관기관이다.

2011년부터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경영을 포함한 ESG 평가를 시행하고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매년 평가하여 기업의 ESG 활동 개선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SG 평가모형은 ISO 26000등의 국제 기준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부합하며 국내 경영 환경 및 법제를 충실히 반영하여 개발된 독자적인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 기업, 기관투자자 평가요청 상장기업을 평가대상 기업으로 한다.

ESG 부문별 기본평가 항목은 환경경영 항목으로 대분류 5개(환경전략, 경영, 조직,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와 17개의 중분류 구성되었다.

사회책임경영 항목으로 대분류 4개(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지역사회, 소비자)와 중분류 15개로 구성되었으며 지배구조 항목으로 대분류 4개(이사회, 주주 권리 보호, 감사기구, 공시)와 중분류 11개로 구성된다.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는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 평가를 시행하며 그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인터뷰를 시행한다. 정량 평가는 다시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로 세분화되는데 기본평가는 ESG 각 부문별 총 13개의 대분류, 242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ESG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심화 평가는 총 35개 평가항목에 대해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ESG 관련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본평가는 각 평가 문항별로 (가)~(사)의 범위를 구분하여 해당 범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ESG 각 부문별 300점씩 총 900점으로 합산되며 이후 심화 평가 시 ESG 관련 부정적 이슈 발생 여부에 따라 부문별 60점, 총 180점의 감점이 이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제 국가 중심의 글로벌 표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K-ESG 지표를 개발하였고 2021년 12월 7일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는 결국 대기업에 속한 하청기업, 중소기업 역시 생존을 위해 ESG 경영기반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ESG를 접목하는 부분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지표는 다른 ESG 평가지표들보다 ISO 국제표준, 특히 경영시스템 표준들과 매우 부합화가 잘되어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항목

분 류		세부 내용
환경	리더십과 거버넌스	환경경영 리더십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거버넌스
	위험관리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위험관리체계
	운영 및 성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설계)
		친환경 공급망(조달/구매/유통)
		친환경 사업장(생산)
		생태계 보전
		성과관리
		환경회계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설정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환경정보 공개	
사회	리더십과 거버넌스	리더십
		전략과 방침
		조직과 의사결정
		기업문화
	비재무 위험관리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
		비재무 위험과 기회의 인식
		비재무 위험 대응
	운영 및 성과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분 류		세부 내용
거버넌스	이사회 리더십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권 보호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감사	내부감사
		외부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정보공개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소통',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부분이 한국ESG기준원의 평가지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환경, 사회 부분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전략과 방침, 기업문화 등 역시ISO 14001, 9001, 50001 등의 경영시스템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2) 서스틴베스트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ESG 평가 기관으로 ESG Value 라는 자체 평가 모델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SG Value는 국내 ESG 관련 정책,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한 평가모델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사슬과 ESG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총 39개의 대표 이슈를 평가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항목

분 류		세부 내용
환경	혁신활동	친환경 혁신역량
		환경성 개선성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생산공정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공정관리
		온실가스
	공급망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고객관리	그린마케팅	
사회	인적자원 관리	근로조건
		고용평등 및 다양성
		노사관계 관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공급망 관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공급사슬관리
	고객 관리	고객정보보호
		소비자만족경영
		품질관리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관계

분 류		세부 내용
거버넌스	주주의 권리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총회
		주주가치 환원
	정보의 투명성	공정공시
		공시위반
		회계 투명성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활동
		감사 및 감사위원회
	이사의 보수	이사 보수의 적정성
		보상위원회
	관계사 위험	관계사 우발 채무
		관계사 거래
		내부거래 위반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 보고	
	윤리경영	

서스틴베스트의 평가는 대중소와 같은 계층화 구조를 활용한 계층적 평가모형을 구성하여 상위체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개의 영역이 있고 각각의 체계에는 각 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그리고 세부 지표가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서스틴베스트는 환경 영역에 4개의 평가항목, 7개의 평가지표 그리고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 영역은 총 4개, 13개, 34개의 세부지표, 지배구조 영역은 6개, 18개, 4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기관의 평가지표에 비교하여 지배구조 측면에서 그 평가지표가 유난히 많다는 것이다.

서스틴베스트 평가지표는 RepRisk 평가지표와 같이 공급망 관리 부분을 크로스이슈처럼 모든 부분에 넣은 것은 우수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사회와 관련된 기업 지배구조 지표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판단된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과 비교하였을 때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 및 대응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평가부분과 ESG 경영을 위한 HLS 경영시스템화 하는 부분은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보완이 필요하다.

4장 /

통합경영시스템 운영방안

ESG 통합경영시스템의 구축 사례의 모형은 ISO 요구사항의 조항별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은 환경 분야에 대응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사회 분야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은 지배구조 분야를 적용하였다.

ISO 요구사항은 앞서 논거 한 것과 같이 High Level Structure에 의한 통합 시스템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ESG 통합 경영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조직 상황은 중소 제조업체의 내부 상황(인원, 규모, 업종, 자본금 등)과 외부상황(시장환경, 지역 등)의 주요 내·외부 이슈를 파악하고,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고객, 관공서, 지역주민 등)의 요구사항과 니즈를 파악하여 조직 자체의 경영상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중요한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둘째,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 분석, 평가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파악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하여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내용을 조직에 적절한 문서화를 통해 규정으로 수립한다.

필요시 관련 규정은 업무 절차서, 지침서, 기준서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할 수 있으며 문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이력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최신상태로 문서화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설정된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방침과 연계된 ESG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전략적, 기술적, 운영적 관점에서 계층별(또는 부서별)로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수립된 ESG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결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실행을 위한 예산, 전문 인력, 설비(환경시설, 안전보건시설, 전산시설 등), 응급조치 활동을 위한 비상대응 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섯째, 운영은 인적자원이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모든 운영의 결과물은 사실적 기록물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한 결과는 기록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수립된 ESG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서 조직 자체의 ESG 통합경영시스템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통한 지속적인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덟째, 최고경영자는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ESG 경영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수립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의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조치 결과를 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 단계로 피드백하고 추가적인 개선의 기회를 반영하여 필요시 규정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동 즉, P-D-C-A의 순환적 활동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검토 결과는 ESG 통합시스템에 대한 경영 효율성과 목

표 달성을 통한경영 효과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중장기 전략 및 목표에 반영되도록 한다.

1. ESG보고서 작성기준

ESG 글로벌 표준은 다음과 같다.

- GRI :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작성지침
- SASB : 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SICS)에 따른 11대 산업군에 따라 별도의 보고지침
- WEF-IBC-MSO : 거버넌스의 원칙, 지구, 사람, 번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ESG 관련 21개핵심지표, 34개 확장지표를 제시
- TCFD Recommendations :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와 목표 등
- IR Framework : 재무/비재무 정보 통합 공시(IR Framework 에 따른 외부 환경, Business Model, 전략, Resource Allocation 등)
- ISO26000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1)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증보유

ESG 경영을 위한 각 부문별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의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석 한국준법진흥원장 역시 체계적인 ESG 경영을 위해 ISO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도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ISO 준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하나의 가이드라인만 참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TCFD나 ISO 등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나 리스크 관리체계 등 주로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GRI나 SASB 같은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실행 체계와 성과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경우 공통된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참고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는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TCFD 권고안, IR Framework, ISO26000, WEF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 공통지표' 등을 꼽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의 비전은 모든 조직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에 대한 보고의 정형성과 비교 가능성을 재무보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1) 모든 이해관계자 및 중요주체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해야 한다.

투자자 및 평가기관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성과보고가 필요하다. 또한 너무 많은 주제보다 우리 회사의 중요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경영활동과 공시가 필요하다.

2) “Green Washing”, “ESG Washing” 을 위한 공시를 해서는 안 된다. 예쁜 디자인 보다는 주제별 정확한 내용과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엄격히 검증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3) 환경·사회·이해관계자와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정평가기준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5장 /

중소기업을 위한 ESG 실행 매뉴얼

1.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의 외부적 문제와 불투명한 대리인 문제인 지배구조를 기업 스스로 내재화한 것이며 기업의 목적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효용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 효용 제고를 실행 목표로 두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1)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바이어와 고객사가 계약, 납품, 공급업체 선정 시 CSR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면 공급업체 행동강령 혹은 글로벌 공급망 평가기준항목을 포함하여 계획해야 한다.

- (1) 조직 : ESG대응 - 경영진의 역할
- ESG 평가 - ESG 위험 및 기회
-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 참여

(2) 환경 :

- 온실가스 배출 -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배출집약도
- 에너지 사용 - 직간접 간접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 물사용 - 물 사용 총량
- 폐기물배출 - 폐기물 배출 총량
- 법규위반 및 사고 - 환경법규위반사고

(3) 사회 :

- 임직원 현황 -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청년인턴채용, 육아휴직
- 안전 및 보건 - 산업재해, 제품안전, 표시 및 광고
-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 공정경쟁 - 공정경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2) 이해관계자 찾기 및 의견수렴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우리 회사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핵심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속가능 주제를 도출하고 고위 의사결정권자가 검토할 리스트를 뽑는다.

3) 중대성평가와 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 (1)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각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각 주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주제별로 공개할 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고위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완전성 원칙에 따른 고위 의사결정권자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보고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 (1) 정보수집을 위한 내부시스템 및 외부 정보획득 방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 (2) 중요주제 중 정책부재 등의 사유로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 (3)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 bound)" 목표설정과 보고 여부를 결정한다.

5) 점검 및 소통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 (1) ESG 지표와 보고서를 연결한다.
- (2) 보고서 마감시한과 피드백에 대해 협의 한다.
- (3) 외부검증 시 검증 받을 지표를 명시할 것
- (4) 회사 홈페이지, 문서 등 보고서 공개 형식을 정한다.
- (5) 내·외부 피드백과 보고서 작성 과정 중 파악 된 점을 정리하고 보고한다.

2. 환경경영 실천

1) 환경경영 목표수립 및 계획

기업은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표수립 및 계획을 세운다.

(1) CEO의 환경경영의지 확립

환경경영에 대한 CEO의 실천의지를 직원들에게 공표하고 환경경영문화의 실천의지를 확립해야 한다. 기업 내 환경오염 개선활동 추진, 환경경영 실천 우수 직원 포상, 에너지 절감정책시행 등의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2) 기업환경분석

기업경영활동 중 다양한 환경오염문제에 부딪히므로 이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환경오염원 파악(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련 주요 이슈(탄소중립, 기후변화공시 등)를 파악해야 한다.

조직상황 분석자료, 이해관계자 분석자료, 위험성 평가자료, 법규 검토자료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환경분야 국제인증 표준별 요구사항 분석

	ISO 14001	ISO 50001	
환경	4.4 환경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4.4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목표와 목표달성 기획	6.2 환경목표와 목표달성 기획	
	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6.3 에너지감축 검토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6.4 에너지감축 성과지표	6.4 에너지감축 베이스라인
			6.5 에너지감축 베이스라인
		6.6 에너지 감축요구사항 데이터 수집기획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검토/경영평가	

2) 분야별 목표 및 계획 수립

CEO에 의해 수립된 환경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별 중·단기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세부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 준비사항

팀별 및 분야별 목표 수립 : 총괄 목표, 각 팀별, 분야별 대기·수질·폐기물·에너지의 위험성 평가 자료, 법규 검토 자료, 교육 일정표, 연간 정비 계획표

(1) 환경목표 및 계획수립

기업의 대·내외 상황에 맞는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친환경제품생산 및 사용, 온실가스감축 방안수립,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 준비사항

목표 추진 계획, 교육 일정표, 연간 점검 계획, 연간 정비 계획, 연간 성과 평가 계획, 내부 심사 계획

(2) 환경경영 분야별 목표 및 계획의 공시

기업 홈페이지, 경영보고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공시해야 한다.

▶ 준비사항

A. ISO 50001, 14001 인증 자료

B. 대기, 수질, 폐기물, 에너지 등 목표 수립 근거 자료

- 조직 상황 분석 자료
- 이해관계자 분석 자료
- 위험성 평가 자료
- 법규 검토 자료

C. 연간 계획 자료

- 목표 추진 계획
- 교육 일정표
- 연간 점검 계획
- 연간 정비 계획
- 연간 성과 평가 계획
- 내부 심사 계획

D. 팀별 및 분야별 목표 수립

- 총괄 목표

- 각 팀별, 분야별 : 대기, 수질, 폐기물, 에너지
 - 위험성 평가 자료 - 법규 검토 자료
 - 교육 일정표 - 연간 정비 계획표

3. 친환경경영 실천

친환경 혁신을 위한 유형을 파악하고 투자분야 및 영역을 선정한다.

(1) 제품의 개발, 생산, 포장, 운송, 소비 전 과정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혁신을 실천한다.

- ① 배출량측정(대기, 용수 등)
- ② 관리 매뉴얼 개발
- ③ 감축활동 실천
- ④ 모니터링 및 공개

▶ 준비사항

법규 검토 자료, 배출 신청 자료, 배출 기준 자료, 정비 계획서, 환경측면 성과측정 자료, 신기술 인증, 친환경 제품 인증, 녹색 인증 기술, 녹색 인증 제품, 특허 목록

(2) 폐기물 관리

제품의 기획·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활용 및 재사용 되도록 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에너지 사용량 분석

사용하는 에너지의 각 총량을 파악하고 친환경 실천을 위한 합리적,

효율적 에너지사용량을 관리해야 한다.

▶ 준비사항

에너지 최저사용량, 고정요인, 관련 변수,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효율, 중요 에너지

(4) 제조업의 환경실행 항목설정

환경경영추진체계	환경경영 방침 및 전략 환경조직문화 구축
환경관리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성과 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	환경정보 공개 생물 다양성 보호 등
환경위험관리 (환경법규 위반)	화학물질 배출 및 소송 환경 법규의 위반 건수 및 투자비용 환경 법규의 위반 건수민원 발생 환경사고(대기, 수질, 화학물질, 유기화학물질) 개선을 환경부담금 납부실적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 제품 서비스 개발 활동/친환경 제품 개발률 친환경 특허 출원 현황 친환경 제품 인증 친환경성 개선 제품개발~사용~폐기물 발생 관리 친환경 제품 사용량(환경 위해 물질 사용량 감소)
환경물질관리	위험물질의 보관(4, 5류 참고) 시설관리 점검 사용증지, 저감, 관리 사업장 온실 가스(CO2 외) 배출 저감량

4. 사회적책임경영 실천

1) 사회적책임경영 목표수립

기업의 근로자 인권보호, 공급망관리, 정보보안, 산업재해예방, 공정경쟁, 사회공헌 등과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 기업 비전 수립

혁신 상생으로 미래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비전을 확립한다.

(2) 기업환경분석 실시

기업활동 전반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제 및 실천사항을 분석한다.

(3) 세부목표 수립

인권경영시스템구축방안, 공급망실사 대비방안, 공정경쟁방안, 정보보안 방안, 사회공헌활동 방안, 산업재해 예방 방안 등을 수립한다.

▶ 준비사항

목표추진 계획, 교육일정표, 연간점검 계획, 연간성과평가 계획, 내부심사 계획

(4) 사회적책임경영 공시

프로그램 실행 내용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 측정 후 이를 홈페이지,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준비사항

팀별 및 분야별 목표 수립 : 총괄 목표, 각 팀별, 분야별 위험성 평가 자료, 법규 검토 자료, 교육 일정표, 연간 계획표

2) 사회책임경영 실천

(1) 자원확보

사회책임경영 실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한다.

(2) 사회책임경영 실천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근로자인권보호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프로그램 실행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근로자인권보호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4) 공정거래 이행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5) 모니터링 및 공시

프로그램 실행 내용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측정 후 이를 홈페이지,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준비사항

취업규칙, 공급망 실사대비 협력사 점검방안, 산업재해요인 분석안, 사회공헌 실천방안, 근로계약서, 윤리경영 실천방안, 비윤리 이슈(부패, 부정청탁, 채용비리, 자금세탁 등)관리방안

3) 사회 실행항목 설정

제품서비스 책임	제품/서비스 안전시스템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제품 안전사고 발생
공급망 관리	공급업체 관리 정책/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 동반성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하도급 위반 사례
인적자원관리	고용체계 운영 절차 근속연수 관리 급여, 성과 및 보상관리 근로복지 환경 노사문화(관행), 조직문화
인권보호	다양성 및 양성평등 인권정책
정보보호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정보보호시스템(정보보안정책 및 활동) 공정경쟁 저해 행위 사회적 기부금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체계(안전보건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산업재해율(재해건수/도수율) 관리 산업안전 조직 및 주요 활동 내용 산재 발생(다발) 사업장 지정 제조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을 사내 협력업체 안전교육 이행을

안전경영	경영자 안전원칙 및 목표관리 사내 자율안전 활동 방법 및 결과 사내 안전 System 구축 여부(안전위원회) 연간 안전 개선비용(직접비용/간접비용)
안전활동	사내 안전 위반 관리 및 조치 건수 잠재위험의 적발 및 조치 건수 Top 안전 Patrol에 의한 조치 건수 작업 표준서 준수 여부 및 개정(변경점) 관리
동반성장	협력사 ESG 경영 활동 여부 협력사 ESG 지원 사항 협력사 ESG 협약 사항 협력사 ESG 위반 조치 사항
과거사고 관리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분석 동일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재발 방지 대책) 최근 3년간 발생사고의 조치 건수 및 개선비용 설비 및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Trouble-Shooting/Risk 위험 관리 가동 전, 후 안전 점검 변경점 관리

5. 지배구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주주, 이사회, 경영자,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누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기업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배구조인 것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ESG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및 성과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기업경영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상승하여 총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지배구조개선 실행

(1) 기업 운영방안 수립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고 경영목표와 지배구조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2) 기업환경분석 실시

기업활동 전반의 지배구조를 분석한다.

(3) 세부목표 수립

의사결정과정의 다양성·독립성·역할의 합리성 등을 분석한다.

▶ 준비사항

목표 수립 : 총괄 목표, 위험성 평가 자료, 법규 검토 자료, 교육 일정표, 연간계획표

(4) 지배구조 공시

프로그램 실행 내용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측정 후 이를 홈페이지,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준비사항

이사회 구성, 이사회활동사항, 주주권리사항, 윤리경영내용, 공정공시 등

2) 지배구조 실행항목 설정

주주의 권리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 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와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외 사외이사 구성 현황
이사회 활동	이사회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사 보수 정책 적절성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 용역 비중
관계사 위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 매입 거래 비중 내부거래 위반
배당	중간/분기 배당 근거 마련 총주주 수익률 최근 3년 내 배당 지급 과소 배당

6장 /

ESG 평가항목

1. 환경요인의 평가

환경은 인간이 의존하는 외부 조건을 의미하며 ESG에서는 기업이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와 같은 조치를 기업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 시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ESG 투자 프레임워크에서 기업은 특정 환경 지표에 의거한 상세한 환경 지표 요소를 공개하여 자본 시장 자원의 최적화 및 해당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운영 중에 발생하는 폐수, 폐수, 배기가스, 고형폐기물 등의 배출물에 대해 각각 관련 관리책임과 관리목적을 설명하고 국가, 지역과 업종별 배출정책, 제도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시지표 내용에서 실례와 구체적인 배출 데이터를 공시하고 일상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관련 배출물의 출처와 배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통계 및 보고를 할 수 있다.

1) 배출물 관리

배출물은 폐가스 및 온실가스, 물과 토지의 오염물질 배출, 유해 및 무해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배출가스에는 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유입자, 오존소모성물질,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타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이 포함된다.

온실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수소 화합물, 화합물 등을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은 의료 및 화학 폐기물, 잉크 연료 도료 및 페인트 등이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 등 위험 폐기물의 통제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해폐기물은 위험폐기물의 통제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서 유해폐기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 이는 건물철거폐기물, 상업폐기물, 주택가구폐기물, 유류차단폐기물, 조경폐기물로 구분된다.

2) 자원 사용

자원 사용에는 직접 소비 포함에너지인 물 및 기타 원자재의 소비와 간접적인 소비가 포함되어 있다. 직접 소비 에너지는 석탄·석유·가스 등이 있으며 간접 소비 에너지는 구매 전력·난방·냉방·증기량 등이 있다.

일반적인 지표는 에너지의 총 소비량과 밀도 소비 상황, 즉 기업 단위 활동, 단위산출 기준에서의 자원소비량을 포함한다. 자원을 사용하는 것 외에 자원발생의 이익도 중요한 측정 차원이다. 전체적으로 기업은 공정과 소모저감 기술을 최적화하여 자원 사용을 줄이고 사용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과 감축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3) 환경 및 천연자원

기업은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정책과 전략을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와 대기질과 관련된 에너지 관리, 배출가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는 별도로 다룰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전략에는 예방, 관리, 복구, 기업 활동으로 인한 자연 서식 피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평가에 포함하는 것 등이 있다.

2. 사회평가 항목

사회분야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관계,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인권보호, 근로자 복지나 근무환경, 기업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고 있다.



MSCI는 제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기여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고 RepRisk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해관계자 소통, 서스틴베스트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공정거래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UN 책임투자원칙도 현대판 노예와 아동노동 등 노동착취 예방에 관심이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협력사의 ESG 경영과 지원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사회적 책임의 평가

사회적 책임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에서 사회적 책임은 회사의 생산경영 활동이 이익의 극대화를 넘어 사회의 장기적인 이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종업원, 소비자, 제조사, 기타 사회참여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며 책임지고 그들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로 직원, 공급자, 고객 등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포함하며 사회적 범주의 지표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공급망 관리는 공급업체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며, 제품 책임은 고객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투자는 지역사회 범위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ESG 책임투자의 이론적인 기반이므로 사회지표 내용과 제약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주주가치의 균형을 이룬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

(1) 직원 이익

직원이라는 인적 자본은 기업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며 자원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직무와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적 자본이 지속적으로 비축되고 직원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기업이 직원을 위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형성하며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고용과 관련해 기업들은 아동노동 근절과 차별 철폐, 성 평등, 민족 신양 다원화를 위한 채용정책을 명확히 하고 실천해야 한다. 노동관계 관리에서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의 기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 때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법에 따라 직원의 관련 휴가와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다원화된 문화 분위기 조성, 개인차 존중, 여성 직원의 존중, 직원 인력의 다원화 실현, 성별, 연령별 관계없이 공평한 발전의 기회와 승진 기회를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준칙은 주로 아동노동 방지나 강제노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최소 취업연령과 강제노동 금지는 기업 경영의 마지노선으로 해외에서 경영하는 기업은 국제노동기준 미국의 사업장, 생산수칙 등 관련 국제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 혹은 공급망 기업에서 아동노동 및 강제 노동이 발견되면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아동노동 관련 학습과 아동의 생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공급업체의 이익

기업은 반드시 공급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공급업자의 관리 특징과 이익을 강조해야 하고 공급업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망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공급망 관리 각 부분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책임 이념을 공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급자의 경영행위를 구속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상하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 공급망 상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공급자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공급망 관리의 환경 및 사회적 리스

크에 관한 것이다. 공급망이란 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나 관계자의 서열 등을 의미한다.

공급망 시스템에서 기업의 구매 행동은 상하의 산업체인상의 제품 형태 및 이익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핵심이 되는 사회적 책임이 수행되면 공급망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은 공급업체의 리스크 문제에 대해 환경 및 사회표준으로 새로운 공급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의 사회적 책임 퍼포먼스가 기준 법규 요건을 초과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예방, 경감 및 구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구매실천, 예상실적 조정, 공급업체 훈련 등을 통해 공급업체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이익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의 최종 구매자로 조직의 의사결정과 활동의 성과를 활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과 관련된 책임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품 안전관리 체계, 제품 안전사고 응급 메커니즘, 제품 안전 위험 관리 메커니즘, 제품라벨 준수 상황, 광고 및 선전 준수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유통과 소비 부문에서 제품의 전체적인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은 상품의 전 생산 부문을 책임지고 품질 관리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설비개조, 자금투입 확대, 선진기술 도입 등을 통해 생산 제품과 서비스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계약법의 공평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한 계약을 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낮추어 상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 이후에는 고객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제품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 책임 이행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인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제품의 리스크 분석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며 제품의 환경, 건강 방면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과 안전 법규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

(4) 커뮤니티의 이익

커뮤니티는 기업이 활동하는 중요한 장소이지만 여러 기업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간과하기 쉽다. 기업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중요한 축으로서 커뮤니티 사무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커뮤니티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기업 경영이라는 기초하

에 커뮤니티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하여 경제의 부정적인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기업은 반드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 계층의 관련 이익을 이해해야 한다. 커뮤니티 투자 방면에서 커뮤니티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커뮤니티 공헌이다. 이는 기업이 지역사회 교육, 환경, 노동수요, 건강,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전개하는 공익활동 실태를 의미한다.

커뮤니티 기여영역에서 기업은 커뮤니티 욕구에 대한 맞춤형 활동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전문 우위와 커뮤니티 자원과의 매칭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커뮤니티 기여도는 기업의 커뮤니티 행동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중에서 자선공익의 투입은 기업이 지역사회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정량적 지표로 기업의 자선공익 성과를 반영한다. 이론적으로 기업은 시장화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고 산업 및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빈곤 지역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잠재적 경제 성장 지점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우수 자원을 개발하여 시장의 힘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와 관련된 분야로 이사회 운영, 기업 경영인의 윤리적·법적 책임, 뇌물과 부패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1) 다양성

이사회와 경영진의 다양성은 다양한 각도에서(성별 및 연령의 다양성)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독립성

이사의 독립성은 중소주주의 이익 확보, 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진의 대주주와의 형평성 제고, 이해충돌 감소, 업종별·자체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독립성은 사외이사에게 적합한 거버넌스 수준을 제공하고 소수주주들을 대변하는 데 필수적이다. 독립성의 또 다른 측면은 CEO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분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독립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형태로 리더십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임기

이사 임기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기 임기의 이사와 장기 임기의 이사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임원에 대한 감시와 전략 배치에 힘써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임기는 주로 주주의 대표권, 공정한 감독 능력, 글로벌 업무와 시장 여건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다.

4) 역할의 합리성

이사회와 임원 역할의 합리성은 주로 증가하는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임원이 관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는 이사가 맡은 외부역할을 인식하고 특히 이사가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나 임원을 겸직할 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사회 기능과 역할 강화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통제장치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주요국가의 기업들은 동종업계의 퇴직 경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에서 ESG 이슈를 논의하고 ESG활동을 공개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보공개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기업설명회, IR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ESG정보공개가 의무화되므로 앞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홈페이지, IR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ESG정보공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중소기업의 ESG 실행과제

최근 ESG는 기업, 금융,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0대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RT(Business Roundtable)에서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

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ESG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수익을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ESG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ESG 추진 비용이 상쇄될 만큼 기업의 수익성 증가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기업들의 ESG경영방식은 MZ 세대의 가치소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이나 비건 등 가치 중심 소비에 익숙한 이들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MZ 세대가 조직과 함께할 수 있도록 ESG 경영으로 채용에 변화를 주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ESG를 얘기할 때 항상 리스크와 기회, 두 단어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리스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다. 석탄 산업은 점차 리스크가 되겠지만 반대로 재생 에너지 산업은 기회 요소가 될 것이다. 리스크만이 아니라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강조될 때

ESG의 강점인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SG 경영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 평가보고서 작성요구 항목 표

※ 파란색 글자는 중소·중견기업용 K-ESG 항목

※ 4개 영역, 17개 범주, 27개 기본 진단 항목

정보공시

평가방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점수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정보공시형식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내용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검증	ESG 정보공시 검증					

공급망관리

공급망 관리	직원 이익	아동노동근절				
		차별철폐				
		성평등				
		민족신앙 다원화				
		공정한 승진기회				
		휴가보장				
		공정한 발전기회				
		강제노동금지				
	공급체 이익	부정부패방지				
		밴드의 수				
		조달비율				
		로컬 밴드의 지출				
		공급망관리방법				
		공급망 환경 및 사회리스크공개				
		밴드의 환경 친화적 제품,				

	소비자 이익	서비스의 촉진					
		품질관리					
		선진기술도입					
		공정한 계약					
		진실한 정보제공					
		제품 안전사고 응급메커니즘					
		제품안전관리체계					
		제품라벨준수사항					
		광고선전 준수사항					
		안전, 건강이유 리콜비율					
		제품 불만을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커뮤니티 이익	취약계층의 이익(요구) 파악					
		환경과 사회 이익					
자선활동							

환경(17개 문항)

K-ESG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법 규제위반	환경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ISO	에너지감축 검토					
	에너지감축 성과지표					
	에너지감축 베이스라인					
	에너지감축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기록					
	내부심사					
CSR	오염예방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기후변화(R)	탄소배출				
		자금조달의 환경영향				
		제품탄소발자국 기후변화취약성				
자연환경 보호						
Retinitiv	천연자원	물부족				
		생물다양성&토지이용				
		원자재조달				
	오염물질 &폐기물	유독물질&폐기물				
		포장재료&폐기물				
		전자기기폐기물				
	환경관련 기회	친환경기술				
		그린빌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회				
	제품혁신					
녹색수익, 연구개발 및 자본지출						
환경공급망						

RepRISK	글로벌오염					
	지역오염					
	환경/생태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자원 오남용					
	폐기물 이슈					
	동물학대					
서스틴 베스트	혁신활동					
	친환경 혁신역량					
	환경개선 성과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환경사고 예방과 대응					
	공정관리					
	온실가스					
	공급망 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그린마케팅						

사회항목

K-ESG 사회	목표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체계				

	인권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동반성장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지역사회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정보보호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CSR	부패방지							
	공정경쟁							
	책임감있는 공급망							
	인권존중							
	공정한 작업조건							
	안전보건							
	고충처리 시스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Retinitiv	인적자원	노무관리						
		보건&안전						
		인적자원개발						
		공급망근로기준						
	제품책임	제품안전 및 품질						
		화학물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정보& 데이터보안						
		사회책임투자						
	이해관계 상충	보건&인구 리스크						
		자원조달분쟁						
		지역사회관계						

	사회적기회	통신망				
		금융, 의료, 보건과 영양섭취				
RepRISK	인권 침해와 이와 관련된 기업의 공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발전 참여					
	사회적 차별					
	강제노동					
	아동노동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					
	노동자 차별					
	직장내 보건과 안전					
	열악한 고용 조건					
서스틴 베스트	근로조건					
	고용평등 및 다양성					
	노사관계 관리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공급사슬관리					
	고객정보보호					
	소비자만족 경영					
	품질관리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활동					
사회공헌활동						

지배구조

K-ESG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이사회 활동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주주권리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윤리경영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참고문헌

최동근, 최성문, 김선우 (2021), ESG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ISO·IEC 국제표준 100選 가이드, 한국 표준협회

홍준표, 박용정, 이진하, 정민 (2021),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워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1-01

리베카 렌더슨 (2021), 자본주의의 대전환 : 허버드 ESG 경영수업, 임상훈 옮김, 어크로스

최남수 (2021),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새빛

강원·정무권 (2020),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지, 49(5), 681-707

고병국·이규환·윤용범·박수진 (2022),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발전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 18(2), 60-72

김양민, 박지현 (2021), ESG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재무성과 : 실증연구고찰과 향후 발전 방향, 전략경영연구, 24(2), 75-114

김윤경 (2020), 기업 비재무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29(1), 35-59.

백상미·최정미 (2021), ESG 평가등급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99, 147-169

변혜영 (2018), Impact of ESG factors on firm value in Korea, 무역연구, 14(5), 135-160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2021),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이정기, 이재혁 (2020),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Vol.23, No.2, 65-9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2021년 상반기 상장기업 ESG 평가결과

박태영, 윤건영 (2021), ESG의 구조, 도서출판 문우사

송은애 (2019),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현금보유 특성비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Report, 9(5), 10~14

윤덕찬 외 4명 (2020), 2019 ESG Incident Report, 지속가능발전소

삼성KPMG경제연구원 (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Samjong Insight, vol.74 통권 제74호

이정기 · 이재혁 (2020),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 연구, 23(2), 65-92

정진섭, 우시진 (2021), 4차 산업혁명과 ESG 경영: 유동산업의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1(3), 351-366

Allen N. J. &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63

Aquino, J., & Russel, D. W. (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80-490

Orsingher, C., S. Valentini, M. D. Angelis (2010), *A Meta-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Complaint Handling in Servic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8(2), 169-186

Pope, N. K. L., K. E. Voges, M. R. Brown (2004), *The effect of provocation in the form of mild erotica on attitude to the ad and corporate image : Differences between cause-related and product-based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33(1), 69-82

Porter, M. E., M. R. 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Redefining capitalism and the role of the corporation in society*,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62-77

Bennett, M & Bell, A. (2004). *Leadership Talent in Asia-How the Best Employers Drive Extraordinary Performance*, NJ : John Wiley & Sons

Brogi, M., & Lagasio, V. (2019).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d company profitability: Are financial intermediaries differ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6(3), 576-587

Carnini Pulino, S., Ciaburri, M., Magnanelli, B. S., & Nasta, L. (2022), *Does ESG disclosure influence firm performance?*, Sustainability, 14(13), 7595

발행일 2023년 9월 20일 1판1쇄

발행 ESG & ISO인증원 주식회사
공저 주청돈 신운철 김철석 배근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2(부산벤처타워 1203)
051) 303-5445
www.esgiso.kr
esgisokorea@naver.com

기획 도서출판유니콘 배근호
등록 02-15-54

ISBN 978-89-92085-20-5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이 도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핵심 매뉴얼

15,000원



9 788992 085205
ISBN 978-89-92085-20-5

이 책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무단전제를 금합니다.